

사커라인

VS

파이터포럼

마니아를 위한 스포츠 포털 사커라인 vs 파이터포럼

# 겨울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스포츠 vs e스포츠

겨울밤은 길다. 이불을 뒤집어써도 추운 날씨에 더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춥고 긴 겨울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e스포츠 마니아들이다. 박지성과 이영표의 활약으로 부쩍 팬이 늘어난 해외축구,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그 재미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는 e스포츠. 정통 스포츠와 신흥 스포츠의 마니아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경기가 열릴 때는 응원하느라 밤을 새우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이곳에 모여 관련 뉴스를 보고 관전평을 올린다. 축구 전문사이트(사커라인)과 e스포츠 전문사이트(파이터포럼)을 소개한다.

글 김문영 객원기자

〈사커라인〉은 기자 출신 박성원씨가 운영하던 축구 전문 홈페이지가 모태. 유엔디코리아 김동훈 대표가 지금의 사커라인으로 개편 작업을 맡아 진행하고 이후 운영자로 합류했다. 한준희, 이형석, 이남훈 등 온라인의 스타 필진들이 사커라인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 마니아 사이트로 출발한 만큼 상업화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회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수익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이터포럼〉은 e스포츠 관련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사이트로 출발했다. 스포츠지, IT전문지 출신의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작성하는 기사들이 이 사이트의 핵심. 스타 동정과 리그 뒷이야기 등 풍성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e스포츠 소식에 목말라하는 팬들의 기

대에 부응했다. 현재 온라인게임 마케팅, 리그 문자중계, e스포츠 전문 주간지 발행 등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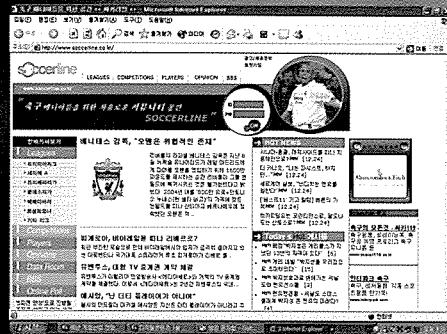
## 스포츠 마니아들의 해방구

스포츠만큼 사람을 매혹시키는 것은 드물다. 술·담배·도박 등등 불건전한 쪽으로 탐닉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스포츠는 건전하고 건강하게 빠져들 수 있는 대상이다. 직접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스포츠다. 야구를 잘 하지 않는 사람도 야구 마니아가 될 수 있고 조기축구 회원이라는 취미뿐인 실력으로도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가 누구인가에 대해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다. 좋아하는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는 밤을 지새워서라도 봐야 하고 좋아하는 팀이 이긴 날은 각종 스포츠

신문·뉴스·관련 사이트를 찾아 헤매야 한다. 보고 또 봐도 재미있는 경기 장면, 읽고 또 읽어도 질리지 않는 승전보가 있어 행복하다.

스포츠만큼 사람을 매혹시키는 것이 또 있다. 바로 e스포츠다. 프로게임리그의 세계는 어느 프로스포츠 못지않은 열기를 가지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이 비둡 중계이고 스타크래프트 경기 중계이지만,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만큼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없다. 가족들과 일전을 벌여서라도 TV 채널 선택권을 쟁취하고야 말며 등 뒤로 어떤 원망이 쏟아지더라도 행복해하며 중계방송 속으로 빠져든다.

스포츠 혹은 e스포츠에 빠져들면 중계방송이나 스포츠뉴스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응원하는 팀 혹은 선수의 사소한 것까지



신문 사이트 <사커라인>



e스포츠 사이트 <파이터포럼>

알고 싶어지며 대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싶어진다. 당연히 응원하는 팀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다른 팀들 간의 경기 결과에도 촉각을 기울이게 된다. 응원하는 팀이 잘하면 왜 잘하는지 얘기하고 싶고 못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려 든다. 분석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자신이 보고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진다. 온라인은 마니아들의 욕구를 확실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다. 사커라인은 해외축구 마니아들의, 파이터포럼은 e스포츠 마니아들의 가장 좋은 모임장소이다.

### 박지성, 잉글랜드 본무대 데뷔 첫 골!

단장으로 추위를 잊고 싶은 12월 어느 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이라는 추억 속의 표현이 제법 그럴 듯하게 들릴 만한 날보가 날아들었다.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입성으로, 그것도 축구종가 잉글랜드의 최고 클럽으로 꼽히는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서 당당한 주전으로 뛰고 있는 박지성이 데뷔 첫 골을 작렬시킨 것. 잉글랜드 1부 리그인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아니라 컵 대회였지만 박지성의 첫 골을 애타게 기다린 팬들에게는 충분히 반가운 소식이었다. 놀라운 속도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면서도 골 소식을 들려주지 못한 그였고, 몇 번이나 골대를 맞추는 슛을 선보이면

서 첫 골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던 시점에 터진 골이었다.

박지성의 첫 골 소식은 인터넷을 발칵 뒤집었다. 스포츠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네티즌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자주 가는 게시판에 그의 첫 골 소식을 전했다. 수십 개의 뉴스가 생성돼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고 골 장면을 캡처한 동영상도 넘실넘실 번져나갔다. 이 와중에 가장 즐거운 비명을 지른 곳은 아마도 사커라인(www.soccerline.co.kr)이었을 것이다.

사커라인은 축구마니아를 위한 사이트다. 이 곳은 해외축구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좋을 내용들이 간결하고 알차게 구성된 곳이다. 축구 마니아들이 모여 만든 이곳은 수준 높은 칼럼들과 부지런한 운영진이 발 빠르게 모은 뉴스들로 가득하다. 수년째 축구팬들이 모이는 전문 사이트로 이름이 드높지만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무래도 코리안 해외파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그들의 승전보나 좋은 활약상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소식을 신나게 전하는 것은 사커라인을 지키는 필진과 운영진들이다. 동호회 성격의 사이트로서 특별한 수익모델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운영을 위해 자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운영진과 필진들의 한결 같은 축구사랑이 사커라인을 지켜왔다.

박지성의 첫 골 소식보다 며칠 앞서 프로젝트 임리그 팬들이 모두 주목한 사건이 있었다. 스타크래프트의 황제라 불리는 임요환이 사상 첫 개인통산 100승을 달성한 것. 임요환은 지난 달 16일 열린 신한은행 스타리그 16강 2주차 경기에서 '삼성전자 칸'의 송병구를 물리치고 온게임넷 스타리그 개인전 통산 100승 고지에 올랐다.

### 임요환, 프로젝트아머 사상 첫 100승

임요환은 2001년 2월 16일 한빛소프트 스타리그 16강 데뷔전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황제의 탄생으로 기록될 이 날 경기 이후로 4년 10개월 동안 100승을 올리며 프로젝트아머에 매우 중요한 업적을 쌓았다. 스타크래프트가 탄생한 이후 수많은 스타들이 뜨고 졌다. 잠깐 스타크래프트를 평정한 게이머도 있었고 큰 기대를 모은 선수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임요환이 황제라 불리는 이유는 프로젝트아머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은 모습으로 승리를 일궈내왔고 최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임요환을 e스포츠의 아이콘으로 보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임요환의 이날 기록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했다. 프로젝트아머를 좋아하는 수많은 네티즌이 임요환의 대기록을 축하했고 함

게 기뻐했다. 경기 관전평을 올리는가 하면 '200승 300승으로 이어가라'는 격려도 쏟아졌다. 이러한 축제 분위기의 중심에 파이터포럼이 있었다.

파이터포럼(www.fighterforum.com)은 2004년 6월 최초의 e스포츠 전문 포털로 출범했다. 디지털타임즈 기자, 온게임넷 인터넷 팀장을 지낸 송재수 대표가 e스포츠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야심차게 오픈한 사이트가 파이터포럼이다. 중앙일간지, 스포츠일간지 등의 게임전문기자들이 파이터포럼 식구로 합류해 프로게임리그의 다양한 소식들을 생성했고 수준 높은 칼럼을 선보여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e스포츠에 관한 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고 가장 방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파이터포럼이다.

### 해외 주요 축구리그 총 망라

사커라인에서는 해외 대표 축구리그의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축구 강국들의 주요 리그에 대한 정보와 뉴스들이 사커라인의 기본이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이탈리아 세리에 A,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네덜란드 에레디비지를 망라하고 있으며 프랑스 르상피오나와 기타 리그 소식도 담고 있다.

사커라인의 메뉴는 크게 리그(league), 대회(competitions), 선수(players), 칼럼(opinions), 자유게시판(bbs)으로 구성된다. 리그는 앞서 이야기한 세계 축구강국의 1부 리그를 망라한다. 세계 3대 리그인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A, 프리메라리가가 있고 이에 못지않은 리그로 차두리가 뛰고 있는 분데스리가, 히딩크 감독의 PSV에인트호벤이 있는 에레디비지, 안정환의 소속팀 FC메스가 있는 르상피오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기타리그 메뉴를 통해 각 팀과 선수의 동정을 전하고 있다.

리그 메뉴는 단순하다.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A 등 각 리그의 하부에 뉴스리스트·리그 소개·클럽·경기일정·경기결과·팀 순위·역대기록 등의 메뉴가 구성돼 있다. 뉴스리스트에는 각 리그의 클럽·선수·리그운영

등에 관한 모든 뉴스가 등록된다. 경기가 있는가 혹은 이슈가 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3건, 많게는 10여건의 뉴스가 매일 업데이트된다.

리그 소개 코너에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각 리그들의 유래·발전사·클럽들의 활약상·특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리그 내 클럽을 이해하는 더 자세한 정보는 '클럽' 코너에 요약돼 있다. 이후 메뉴를 통해 각 시즌 경기일정과 경기결과·현재 팀 순위·역대기록 등을 선보인다. 팀 순위에서는 현 시즌 뿐 아니라 지난 시즌들의 팀 순위 및 개인 득점 순위 기록도 볼 수 있다. 역대기록 코너에서는 연도별 리그우승팀과 주요 컵 우승팀을 찾아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프리미어리그의 1889년 우승팀부터 모두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대회(competitions) 메뉴는 현재 챔피언스리그·UEFA컵·유럽선수권대회·A매치·월드컵 등의 코너로 구성돼 있다. 각 대회의 관련 뉴스, 경기일정과 결과, 역대기록 등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챔피언스 리그의 역대우승팀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최근의 시즌 기록은 예선 1라운드부터 결승에 이르는 경기 결과가 빠짐없이 남아 있다. 사커라인의 정보관리능력을 알 수 있는 대목.

선수(players) 메뉴는 세계 축구계의 영웅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분석글로 짜여 있다. 반니스텔루이·티에리 앙리·브라질의 영웅 호나우두 같은 걸출한 스트라이커들과 베컴·피구·지단 등 스타 미드필더를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 e스포츠의 모든 것

어떤 경기에서든 스타는 소속팀을, 리그를, 스포츠 자체를 뜨겁게 만든다. 한 명의 스타가 비인기종목을 순식간에 관심종목으로 만드는 일도 있다. e스포츠에 있어서도 스타의 존재는 확실히 이러한 역할을 한다. 임요환·박정석·홍진호 같은 e스포츠의 스타들은 오늘도 수많은 팬들을 게임방송에 빠져들게 하고 e스포츠 포털로 불러들인다.

전통의 언론들, 오프라인의 언론들이 e스포

츠의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을 때, 팬들은 e스포츠 뉴스에 목말라했다. 파이터포럼은 이러한 팬들의 욕구를 시의적절하게 충족시켜주며 등장한 사이트였다.

파이터포럼의 메뉴는 크게 뉴스·모바일·커뮤니티·기록실로 구분된다. 매우 단순해 보이는 구성이지만 수록하고 있는 정보량이나 제공중인 서비스는 실로 방대하고 다양하다. 뉴스 메뉴는 양대 게임방송인 온게임넷과 MBC게임의 주요 리그 기사·인터뷰·칼럼·이슈·아마추어·기타 뉴스·포토뉴스 등으로 구성된다.

모바일 메뉴에서는 좋아하는 선수를 보고 베틀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전화에서 \*\*7979를 누르고 네이트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파이터포럼을 만날 수 있다. 모바일에는 스타리그중계·MVP투표·스타게이머들의 사진앨범·승부 베틀 등의 메뉴가 마련돼 있다. 커뮤니티 메뉴는 자유게시판·사진갤러리·온라인 폴·Q&A게시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유게시판 외에 삼성전자 칸, SK텔레콤 T1·KTF 매직앤스·POS 등 프로게임팀별 게시판도 있다. 팬들이 직접 감독 입장이 되어 리그 엔트리를 짜고 전략을 구상하는 등 자유롭게 생각한 것들을 글로 남길 수 있다. 사진갤러리는 e스포츠 관련 사진뿐 아니라 네티즌들 스스로 재미있다고 올리는 사진들로도 상당수 채워진다. 팬들이 스스로 재미있는 사진을 올리고 답글을 주고받는 코너로서 꽤 인기가 높다.

사커라인의 출발은 200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포츠신문에 재직하고 있던 박성원 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이트 'www.allsports.co.kr'가 사커라인의 모태다. 박성원씨는 이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오던 한준희씨(현재 MBC ESPN 해설위원)의 글을 보고 이메일을 띄워 필진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한준희씨는 박성원씨의 열정에 끌려 별 이름 없는 사이트에 글을 쓰기 시작한다. 비슷한 경로로 온라인에서 활약하는 축구전문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001년 지금의 김동훈 대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이트로 개편 작업을 시작했고 그해 6월 사커라인을 열었다.

### 해외축구 전문가들이 쓰는 칼럼

사커라인이 수많은 축구마니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필진들이 직접 생산해내는 콘텐츠 때문이다. 보통 이러한 종류의 사이트들은 다른 언론의 기사를 스크랩해 뉴스코너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사커라인의 뉴스는 100% 필진들이 만든 기사다. 직접 경기를 보고 쓴 기사도 있고 해외 축구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해 재구성하거나 영문 기사를 번역해오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다른 뉴스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는 '사커라인표' 한글 기사다.

잘막힌 뉴스를 넘어 칼럼(opinions) 코너로 가면 필진들의 진가를 볼 수 있다. 해외 축구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성심껏 작성한 심도 있는 칼럼은 사커라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콘텐츠다. 필진은 프리메라리가의 이형석·송영주·이남훈, 세리에 A 최중욱, 분데스리가의 김태우·이범석·차상엽, 프리미어리그의 한준희·배철호 등 각 리그를 분담해 글을 쓴다. 물론 엄격히 말은 리그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일정과 형편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 담당리그 관련 기사를 쓰기도 한다.

어쩌면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글을 쓴다'는 것이 정확한 말일지도 모른다. 사커라인은 태생이 개인 사이트였고 모여든 필진이 원래 아마추어였다. 해외축구 마니아인 대학생, 직장인이 그저 축구가 좋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아서 쓰기 시작한 글이다. 칼럼니스트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고료도 이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리 목적의 사이트가 아닌 만큼 필진에게 원고료를 줄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떤 원고를 쓸지 강제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팬들이 찾아오면 항상 불거리 읽을거리가 충분할 만큼 내용이 꾸준히 업데이트된다.

### 사커라인에서 탄생한 스타 해설위원

"필진들이 바빠서 예전만큼 활발히 내용을 업데이트하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단합대회를

했거든요. 우리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봐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좀더 성의 있게 하자. 그 후로 글이 더 활발히 등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콘텐츠 업데이트에 대한 계획이 없는 셈인데 필진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죠." 김동훈 대표는 사커라인이 그만큼 성장해 온 공을 필진들에게 돌린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축구 마니아로서 글을 쓰기 시작해 대가 없는 일을 몇 년간 해온 필진들은 어느덧 해외축구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들의 기사·칼럼·선수 소개 글은 결코 아마추어의 글이 아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필진으로 활동해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쓴 글은 전문가의 글 못지않다. 선수·클럽·리그 동향·전술과 전략을 보는 눈은 예리하다. 내용은 깊이 있고 재미있으며 글 솜씨도 매끈하다. 새로 합류한 필자들의 글은 선임 필진들이 보고 수정할 내용을 조언하기도 한다. 이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 지식과 정보들, 글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사커라인의 콘텐츠에 녹아 있다.

우리나라에선 해외축구가 조명 받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설기현·차두리·박지성·이영표 등이 유럽 무대에 진출하면서 조금씩 일반에도 알려졌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중계도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만큼 해외축구에 정통한 전문가의 수도 많지 않다. 사커라인 등 온라인에서 뛰어난 활약상을 보인 필자들이 해외축구분야 프로페셔널로서 진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MBC ESPN의 축구해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준희 해설위원은 사커라인 필진 출신의 대표 스타. 같은 MBC ESPN의 정효용 해설위원, Xsports의 송영주 해설위원도 사커라인 필진이다. 케이블방송에 스포츠채널이 도입되고 해외축구중계를 시작하면서 해설위원이 필요해졌지만 해외축구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방송 외에도 전문인력 수요가 늘었지만 역시 전문가 부재 문제가 대두됐다. 사커라인은 이렇게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곳과 축구마니아에서 전문가로 탈바꿈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사커라인에 실린 좋은 글을 보고 해설위원으로 위촉한 경우가 대표적.

변변히 원고료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사커라인은 아마추어 저널리스트가 프로페셔널로 이행하는 관문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 덕분인지, 사커라인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인지 사커라인에 글을 쓰고 싶다고 자청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운영자 앞으로 글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 중에는 어느 전문가 못지않은 글을 써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해외축구에 대한 이해와 저변이 취약한 우리 실정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e스포츠 초창기부터 써 온 기사**

e스포츠 포털 파이터포럼에서도 핵심은 뉴스 콘텐츠다. IT전문지, 스포츠지 등에서 게임 분야를 담당하고 e스포츠 태동 초기부터 새로운 세상의 뉴스를 써왔던 기자들이 파이터포럼에 뉴스를 쓰고 있다. 사커라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언론의 뉴스를 가져오는 형태가 아니라 자체 인력으로, 파이터포럼만의 눈으로 쓴 기사들을 제공한다는 것이 오늘의 파이터포럼을 만든 원동력이다.

파이터포럼에 업데이트되는 일평균 기사건수는 20건. 스타크래프트·워3·스페셜포스·프리스트라이·WEG·카트라이더 등 e스

포츠 전반에 걸친 리그 뉴스와 포도 뉴스를 제공한다. 기사당 평균 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한다는 데서 파이터포럼이 생성하는 뉴스의 가치를 알 수 있다.

파이터포럼은 사이트 오픈 이후 쌓아온 e스포츠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2005년 8월 국내최초의 e스포츠 전문주간지(esFORCE)를 창간했다. 표지를 포함해 총 100면으로 발행되는 이 매체는 e스포츠스타들, 각 팀의 선수들의 인간적인 면까지도 조명한다. 게임 중에는 보기 힘들었던 선수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지면으로 만날 수 있다.

스타크래프트 리그 뉴스, 프로게이머 관련 기사, 프로게이머 및 리그 관련 사진 등 e스포츠 관련 뉴스가 40% 이상 차지하며 약 40%

(표) 사커라인 vs 파이터포럼 주요 현황

구분	사커라인	파이터포럼
설립일	2001년 7월	2004년 5월
서비스 시작일	2000년 8월	2004년 6월
대표이사	김동훈	송재수
사업 내용	해외축구 전문사이트 운영	e스포츠 포털 운영, e스포츠 전문주간지 발행
홈페이지	www.soccerline.co.kr	www.fighterforum.com

는 신작게임, 인기게임 업데이트 소식, 인터뷰 등 게임 관련 뉴스로 채워진다. 휴대전화·MP3플레이어 등 최신의 디지털 뉴스까지 망라한다.

스포츠조선 기자출신으로 e스포츠계 최고의 정보력과 분석력을 가진 전동희 편집장을 필두로, 스포츠조선 출신 임태주 팀장, 스포츠투데이와 게임조선 등을 거친 전형철 기자, 그 외 게임분야 전문성과 취재력을 갖춘 취재팀, 사진팀이 만들어내는 뉴스는 항상 e스포츠계 이슈를 창출해왔다.

**양질의 콘텐츠를 유지하는 길**

사커라인은 이제 새로운 고민에 빠져 있다. 지금까지 마니아들의 열정과 애정으로 운영해온 사커라인을 좀더 든든하게 받쳐 줄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사커라인의 현재 수익 모델은 온라인 광고와 콘텐츠 판매 두 가지다. 현재 네이버에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유료 콘텐츠 판매라는 형식으로 진행해 서버

유지비용 등으로 충당해 왔다. 2006년에는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이기도 하고 해외축구 관련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이트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콘텐츠 판매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커라인은 매우 충성도가 높은 사이트다. 이 곳의 회원수는 이제 12만명 수준. 사이트 유명세에 비해 회원은 적은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곳의 콘텐츠는 로그인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일 접속자가 5~6만명에 달한다는 사실. 전체 회원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매일 들른다는 뜻이다. 실제로 뉴스 조회수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수와 조회수는 굉장히 많다.

회원 충성도가 높은 만큼 마니아 성향의 이

사이트에 상업성을 가미하기란 쉽지 않다. 김동훈 대표는 "현재 제공하는 콘텐츠는 그대로 무료로 제공할 것이다. 이후 새로운 콘텐츠나 서비스를 통해 유료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터포럼은 e스포츠 전문 웹진을 필두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프로게임리그 문자중계·모바일 서비스·게임 마케팅 대행·e스포츠 매체 사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빠르게 달려왔다. 또한 앞으로 진행할 사업 영역도 무궁무진하다.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콘텐츠 양과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이 이 두 사이트의 바람이다.

해외축구나 e스포츠는 공통점이 있다.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아는 사람은 무섭게 빠져드는 세계라는 점이다. 그리고 한번 빠져든 사람들은 그 세계에 무한한 애정과 지지를 보낸다. 사커라인과 파이터포럼은 이러한 팬들의 지지 속에서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곳들이다. (P)